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2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그림의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적 지혜를 쌓아야 한다.
- ② 예악(禮樂)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학문 탐구에 힘써야 한다.
- ③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벗어나 만물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 ④ 도덕과 예의 규범을 지키기 위해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
- ⑤ 명분[名]을 바로잡기 위해 신분에 알맞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지금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상황을 문득 보게 되면, 다들 깜짝 놀라고 측은해하는 마음이 들어 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교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 아니고, 우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도 구해주지 않았다는 나쁜 평판을 듣기 싫어서도 아니다.

- ① 엄격한 법과 무거운 형벌로써 악한 본성을 규제해야 한다.
- ②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여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③ 마음이 사욕에 가려지지 않도록 사단(四端)을 형성해야 한다.
- ④ 의로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 ⑤ 친소(親疏)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

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쾌락은 신체 영역에서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는 동시에 정신 영역에서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쾌락은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이다.
 을: 쾌락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쾌락을 즐기고 나서의 후회와 멀리하고 나서의 만족을 비교하여 경계한다면 어떠한 정념의 자극에도 동요치 않는 정신 상태를 가질 것이다.

- ① 갑: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성적 사유를 배제해야 한다.
- ② 갑: 쾌락의 극대화를 위해 자연적인 모든 욕구를 추구해야 한다.
- ③ 을: 의지로 불가능한 일들을 극복하여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 ④ 을: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성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정치에 참여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갑은 중국 불교 사상가, 을은 한국 불교 사상가이다.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부처는 자신의 본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 자신의 본성이 미혹되면 중생이고, 자신의 본성을 깨달으면 부처이다.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 것이니, 점진적 단계라는 것은 없다.
 을: 단박에 깨달았더라도 번뇌가 두텁고 습기(習氣)가 무거워서, 마음에 욕망이 일어나 혼란에 빠지게 된다. 고요하게 신령한 앎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선정과 지혜로써 혼미함을 제거하여 무위의 경지에 들어감이 마땅하다.

- ① 선(禪)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직관해야 하는가?
- ② 진리는 문자가 아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인가?
- ③ 자성을 깨달은 후에도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하는가?
- ④ 단박에 깨달으면 몸에 밴 나쁜 습기도 한꺼번에 소멸되는가?
- ⑤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학(敎學) 공부에만 매진해야 하는가?

5.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분 좋은 감촉에 매혹되지 않고 괴로운 감촉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즐겁거나 고통스럽거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니, 좋다고 취하거나 싫다고 내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탐욕[貪], 분노[瞋], 어리석음[癡]에서 벗어남으로써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보기>

- ㄱ. 오온(五蘊)으로 구성된 독립된 자아를 확립해야 한다.
- ㄴ. 여덟 가지 바른 수행으로 무명(無明)에 도달해야 한다.
- ㄷ.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를 실천해야 한다.
- ㄹ. 삼독(三毒)을 제거하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고 2

6.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군자의 학문이 어찌 행위를 떠나고 논설(論說)을 벼릴 수 있겠는가? 다만 행위와 논설에 종사하는 것은 요컨대 모두 지행합일(知行合一)의 공부이며, 바로 본심의 양지(良知)를 실현하는 것이다. 을: 치지(致知)와 역행(力行)은 항상 서로 의존하며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후와 경중을 구별해야 한다면 선후를 논할 때는 치지가 먼저이고, 경중을 논할 때는 역행이 중요하다.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 ㄱ. A: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사물에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 ㄴ. B: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궁구하여 삶을 극진히 해야 한다.
- ㄷ. B: 도덕적 양[知]과 실천[行]이 일치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 ㄹ. C: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여 도덕적 본성을 보존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백성들을 제도[政]와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형벌을 면하고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이들을 도덕[德]으로 이끌고 예(禮)로써 다스리면 부끄러움을 알고 또한 바르게 될 것이다.
을: 내가 무위(無爲)하니 백성은 스스로 교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은 스스로 올바르게 되며, 나에게 일삼는 것이 없으니 백성은 스스로 부유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고자 하니 백성은 스스로 소박해진다.

- ① 갑: 백성을 덕으로 감화하기보다 상벌로써 통치해야 한다.
- ② 갑: 군주는 항상 의로움보다 경제적 이로움을 우선해야 한다.
- ③ 을: 물질적 풍요로움을 위해 문명의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 ④ 을: 백성들이 자연에 따라 살아가도록 무위로 다스려야 한다.
- ⑤ 갑과 을: 통치자는 자신을 먼저 수양하여 인의를 실현해야 한다.

9.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세계에는 감각적으로 확인되는 일반적인 특성들이 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일반적인 특성은 스스로 생겨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이 때문에 무한 소급해가는 모든 원인의 궁극적 원인이 없다면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세계에는 궁극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 ①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 ② 자연법은 오로지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 ③ 인간이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려면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 ④ 자연적 성향에 따라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다.
- ⑤ 인간이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덕이 필수적이다.

10.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물들이 나에게는 나에게 보이는 대로이고,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보이는 대로입니다. 각자에게 지각되는 것이 각자에게 참이 되므로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견해도 참이 됩니다.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수련함으로써 참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갑



을

- 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윤리가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② 윤리적 성찰보다 사회적 성공을 중시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③ 감각적 경험을 도덕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④ 주관적 신념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이 결정됨을 모르고 있다.
- ⑤ 현실의 삶에서 유익한 것만이 진리가 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7.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신령한 마음속에는 세 가지 이치가 있다. 그 본성을 말하자면,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한다. 이는 맹자가 말한 성선(性善)이다. 그 권형(權衡)을 말하자면, 선을 할 수도 악을 할 수도 있다. 이는 고자의 소용돌이치는 물[湍水]의 비유가 지어진 까닭이다. 그 행사(行事)를 말하자면, 선을 하기는 어렵고 악을 하기는 쉽다. 이는 순자의 성악설이 나오는 까닭이다.

<보기>

- ㄱ. 인간은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이다.
- ㄴ. 사단을 확충하여 모든 육체적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 ㄷ. 사덕은 반복적인 도덕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 ㄹ.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형구의 기호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 행복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여러 선 중에서 최고의 선이다. 따라서 행복은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며, 모든 행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덕에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있다. 지성적 덕은 대체로 교육에 의해서 생겨나며, 품성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난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품성적 덕이 형성된다.		✓	✓		✓	
품성적 덕을 갖추기 위해 지성적 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		✓
삶의 목적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덕이 필요하다.			✓		✓	✓
덕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이다.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①~④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동양인은 형이상(形而上)에 밝아 그 도(道)가 천하에 훌륭하고, 서양인은 형이하(形而下)에 밝기 때문에 그 기(器)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동양의 도로써 서양의 기를 행한다면 지구의 오대주를 평정하지 못할 것도 없다.

을: 우리의 도는 무위이화(無爲而化)이다. 그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며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서양 사람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분별이 없어 도대체 한울님의 단서가 없다.

◎ 학생 답안

갑과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① 동양의 유교적 가치와 질서는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고, ② 이옹후생(利用厚生)을 위해 서양의 빌랄린 기술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을은 ③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보았으며, ④ 경천(敬天)사상을 바탕으로 유·불·도 사상을 융합하여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갑과 을은 모두 ⑤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현세에서 이루고자 하였다.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13.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사물의 본성에는 어떤 것도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
-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 ① 신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다.
- ② 인간이 겪는 사건과 변화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 ③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자연의 인과 질서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④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만물이 생겨남을 인식해야 한다.
- ⑤ 자연을 이성적으로 관조함으로써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1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예(禮)는 어디서 생겨났는가? 사람은 나면서 욕망이 있는데,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곧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추구함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없다면 곧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투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궁해진다. 옛날의 성왕은 이 혼란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예의(禮義)를 제정하여 한계를 분명히 하였고, 이에 따라 사람의 욕망을 정도에 맞게 길러 주고 또 사람의 욕구를 만족하게 하였다.

<보기>

- ㄱ.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예를 통해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
- ㄴ. 성인(聖人)의 예를 배우고 익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 ㄷ. 군주는 예를 도덕 생활과 통치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 ㄹ. 타고난 성정(性情)을 보존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도덕과 입법의 원리는 쾌락과 고통에 근거해야 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할 때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등의 기준에 따라 측정한 쾌락과 고통의 양을 비교해야 한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더 높은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버리고 저급한 기능만을 갖는 동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 ① 갑: 선악을 판단하는 근거는 행위의 결과가 아닌 동기이다.
- ② 갑: 인간은 쾌락을 피하고 고통을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③ 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상한 쾌락을 선호할 것이다.
- ④ 을: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을 오직 쾌락의 양으로 한정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공리 증진을 위해 개인의 이익은 항상 배제되어야 한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고 2

16.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깨끗함과 더러움은 그 성품이 다르지 않으니 본래 일심(一心)이요, 생사(生死)와 열반(涅槃)도 끝내 두 경계가 없다. 본래 일심이라서 두 경계가 없지만 다만 중생들이 혹은 고요하다고 하고 움직인다고 하는 큰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만약 잠을 깬다면 이것도 저것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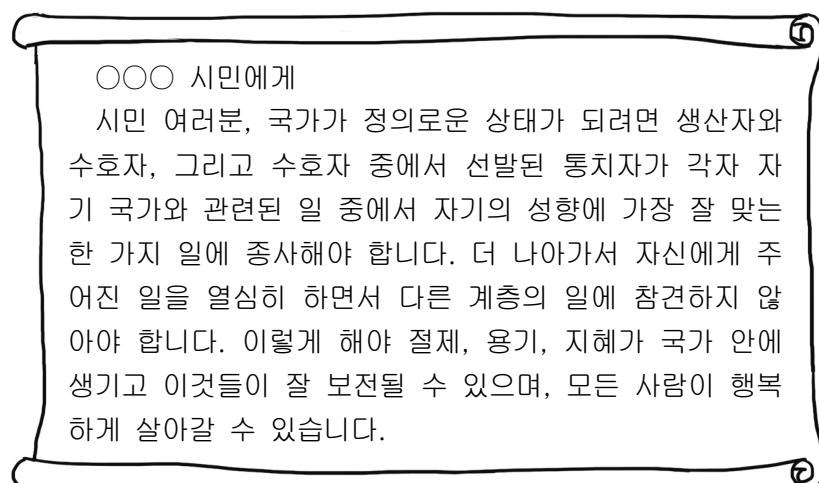
- ㄱ. 일심을 바탕으로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해야 한다.
 - ㄴ. 진여(眞如)와 생멸(生滅)이 별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 ㄷ. 각 종파 간의 특수한 입장은 없애고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 ㄹ.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정불변하는 실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악덕과 덕은 단순히 이성 또는 관념들의 비교에 의해 발견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악덕과 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감정에 의해서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도덕성은 판단된다고 하기보다는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① 정념은 이성에 봉사하고 복종해야 하는 노예일 뿐이다.
 - ② 인간의 정서적 반응으로는 덕과 악덕을 구분할 수 없다.
 - ③ 선악의 구별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 ④ 도덕성은 칭찬이나 비난의 느낌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다.
 - ⑤ 이성은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없다.

18.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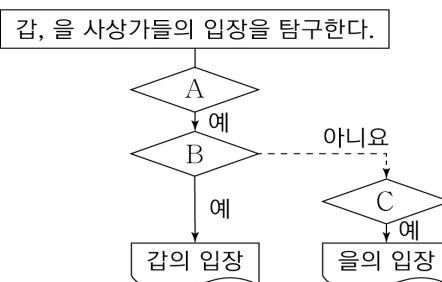
- ㄱ. 이상 국가의 세 계층은 모두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
 - ㄴ.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여 지혜를 갖춘 철인이 통치해야 한다.
 - ㄷ. 국가의 정책 결정에 모든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 ㄹ.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 간에 역할 교환이 자유로워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이 모두 이(理)와 기(氣)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각의 유래와 관련하여 주된 것을 가리켜 말한다면 어떤 것은 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기라고 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을: 사단은 본성에서 본연지성을 말한 것이고 칠정은 이와 기를 합쳐 말한 것이다. 기질지성은 본성이 기질 가운데 있는 것이니, 본성을 둘로 나눈 것이 아니다.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므로, 정을 둘로 나눌 수 없다.

(4)



〈범례〉

	: 출발조건
	: 판단내용
	: 판단방향
	: 사상가의 입장

- <보기>

- ㄱ. A: 사물에서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가?
 - ㄴ. B: 빌하는 것은 기일 뿐이며 이는 빌하는 까닭인가?
 - ㄷ. B: 칠정 중의 선한 감정은 사단과 별개의 감정인가?
 - ㄹ. C: 사단은 이가 빌하고 기가 이를 따른 도덕 감정인가?

① 그 는 ② 그 드 ③ 는 드 ④ 는 드 ⑤ 드 드

20.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도덕적 의무를 준수하기에는 나약한 존재이다. 따라서 도덕 법칙은 의무이자 강제로 작용한다. 의무에 맞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행위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 따르는 경우에만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① 연민의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인가?
 - ②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가?
 - ③ 감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보편적 도덕 원리를 도출해야 하는가?
 - ④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유용성이어야 하는가?
 - ⑤ 도덕적 의무를 준수하는 삶은 언제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가?

* 화이 사학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